

발행일 2018.2.1. (통권 제129호)

발행처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발행인 이희영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4206호

전화 031-738-0300

팩스 031-624-5021

홈페이지 <http://www.gidcc.or.kr>

□ 이번주는 수두 352건, 성홍열 96건, 유행성이하선염 71건, C형간염 51건 등의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유행성이하선염은 지난 4주 평균 대비 소폭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4주 평균(60건) 및 지난 해 동기간 대비 증가('17년 누적: 188건, '18년 243건)하였습니다.

-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접종기준 : 생후 12~15개월 1차, 만4~6세 2차 접종 총 2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 (국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2주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행 지속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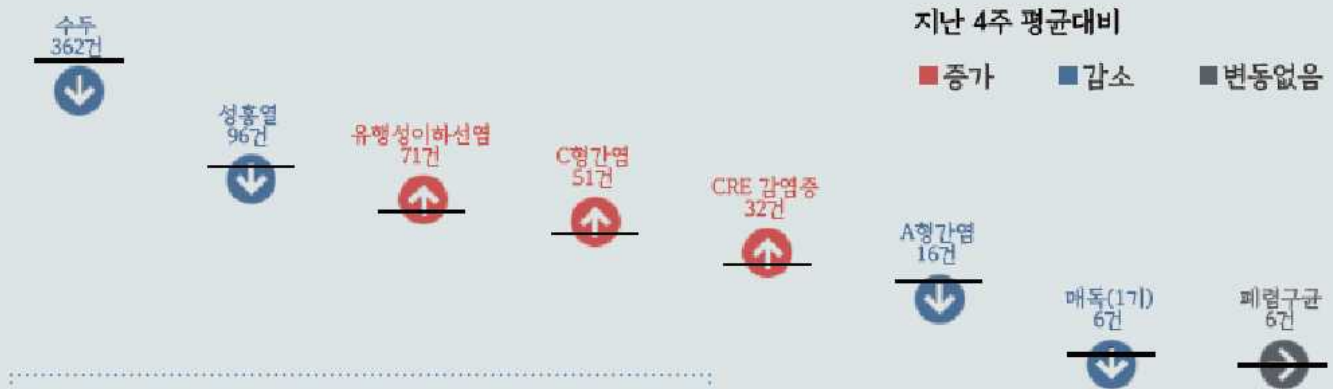
\* 도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 : 1주차 61.2명 → 2주차 62.6명 → 3주차 57.9명 → 4주차 41.8명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증상 초기에 복용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세요

- (국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1차 감염에 의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번주에는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권순정교수님의 칼럼 「**감염병과 병원건축**」에 대해 소개합니다.

## 2018년 제4주차 경기도 감염병환자 신고현황



클릭! 하시면 보다 자세한 감염병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감염병 신고		해외유입		
3건	급성B형간염 세균성이질	세균성이질 1건	헤파염 2건	C형간염 1건
2건	CJD/vCJD 뎅기열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매독(27) 큐열			
1건	브루셀라증 홍역 백일해 신증후군출혈열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감염병 신고현황은, 발행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is.cdc.go.kr)에 제공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7년, 2018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로,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신고건을 포함합니다.

- 별도의 감시체계로 운영되는 결핵, HIV 및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은 제외되었습니다.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어떻게 건축해야 할까요?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권순정 교수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에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사고에 이르기까지 병원 내에서의 감염은 점점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쩌면 예전에도 이러한 원내감염이 많았는데 그동안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원내감염**이란 입원 이전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폭로되어 발생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내인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 감염증을 의미한다. 원내감염의 많은 부분은 **적절한 건축적 장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서 다인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하는 것이나, 병상간 간격을 1.5m 이상 확보하는 것 등은 감염예방을 위해 병원환경을 조절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병원내 감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 접촉, 물은 물리적 환경에서 감염균의 주요 전달수단이 된다. 먼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메르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사스, 결핵, 디프테리아 등이 있다. **공기감염**은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염전파억제를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복합적인 실내 환경 즉, 온도도, 기류, 환기, 차압, 청정도, 동선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공기감염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인 병실, 환자가 있는 공간의 음압유지, 충분한 환기, 수평층류(Laminar Air Flow), 급배기구의 HEPA 필터 설치, 자외선 투사, 동선분리 등을 활용하여 공기매개 병원체의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

**접촉감염**을 억제하는 것은 원내 감염방지의 기본사항이다. 접촉 감염의 환경적 경로에는 사람간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환경의 표면을 통한 간접 전염 등이 포함된다. 접촉에 의한 감염이 일반적으로 MRSA, VRE과 같은 병원체에 의한 병원 내 감염의 주요 전달 경로가 되고 있다. 많은 병원체는 병원내부의 환경표면에서 수주일 혹은 몇 달을 생존할 수 있고(Bonilla, Zervos, & Kanfrnan, 1996; Kramer, Schwebke, & Kampf, 2006) 그러한 오염된 표면은 병원체 저장소로서 작용하여 감염전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황색포도구균 환자 패혈증 발생과 손위생 수행률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손위생 증진활동을 시작한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원내에서 발생하는 MRSA 패혈증이 1/3 가량(65명) 감소(의료진들의 손위생 수행률은 92.2% 증가)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적절한 손 소독이 원내 접촉감염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비눗물 세척과 비교할 때, 알코올 손 소독방식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며, 직원들이 그들의 손을 더 신속히 소독할 수 있고, 부작용과 재오염의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oyce & Pittet, 2002). **공간전체를 소독하는 훈증소독(Hydrogen Peroxide Vapor)**은 병실 등을 소독하는 데에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소독을 위해 병실을 모두 비워야하기 때문에 다인병실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수인성감염**은 환자의 안전에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많은 박테리아나 일부 원충감염 미생물은 습한 환경이나 병원환경 내 수용액에서 증식하거나 생존이 용이하다(Sehulster et al., 2004). PSAE(Pseudomonas Aeruginosa, 녹농균)에 의한 병원 내 수인성 감염 폐렴으로 미국에서만 매년 1,4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미국 내 115개 투석시설 중 83%에서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Carson et al., 1988). 종종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은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속에 서식하는 균으로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된다. 이러한 병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급수시스템, 위생기기, 에어컨 및 호흡기 치료기 등을 적절히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입원환경인 병실은 물론, 많은 환자 등이 집중되는 외래 및 응급실에 대한 원내감염 전파 방지조치도 매우 중요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응급실이 감염전파의 주요 원인이 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원내감염억제는 메르스와 같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는 고위험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병원 내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인, 환자, 방문객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상적인 원내감염억제에 더욱 주의하고 보다 면밀한 예방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THE WEEKLY NEWS

민중을 클릭! 하시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내소식

※ 매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경기도 및 국내 주요 감염병소식을 [www.gidcc.or.kr/gypd-type/국내소식](http://www.gidcc.or.kr/gypd-type/국내소식)에서 한 눈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국가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한다 1.25\(목\)](#)

[\[보건복지부\] 감비아·세네갈 등 아프리카 위험지역 방문 시 리프트밸리얼 감염 주의 1.25\(목\)](#)

[\[경기도청\] \(협조서한문 추가\)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 상황\(1.26. 08시 현재\) 1.26\(금\)](#)

[\[경기도청\] 남경필 “AI 확산·대형화재 막아라” ... 도, 주말동안 방역·화재예방 집중 1.28\(일\)](#)

[\[보건복지부\] 국립마산병원-\(주\)큐리언트 결핵치료제 임상개발 협약 체결 1.31\(수\)](#)

[\[보건복지부\]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1.31\(수\)](#)

[\[경기도청\] AI 방역대책추진 상황보고\(1월31일 22시 기준\) 2.1\(목\)](#)

[\[질병관리본부\] 17년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 220명 분류, 격리조치 후 검사 시행하여 모두 음성 확인 2.1\(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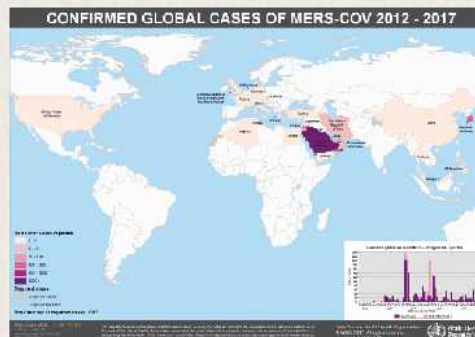
[\[경기도청\] “메르스 불안 NO! 감염병 예방의 드림팀이 났다~” 1.26\(금\)](#)

##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감염병집단소식(DONs)은 [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http://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에서 번역된 전문을 확인 하세요.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 Saudi Arabia(사우디아라비아)

- 2017.12.9.-2018.1.17. 사우디아라비아 IHR focal point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20명의 추가 환자 발생 보고
- 총 8건의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1건은 이전에 WHO에 이전에 보고 사례임
- 보고된 환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링크](#) 참조
- 보고된 20건은 사우디아라비아 11개 지역에서 보고
- 연령은 28 - 89세까지 분포되며, 20건 중 5건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단봉낙타와 접촉력이 있음
- 환자 1명은 다른 사유로 증상발현 전 입원



긴급상황실  
Emergency Operations Center



### “메르스 불안 NO! 감염병 예방의 드림팀이 났다~”

[경기도 현장 속으로 33]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사회 | 2018.01.26 10:16

[경기도 현장 속으로]는 도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각종 현장 이슈와 활약을 생생하게 전하는 <경기G뉴스>의 기획시리즈입니다. 33번째로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감염병 관리 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찾았습니다. [편집자 주] '환자 186명, 사망 38명, 치사율 20.4%, 격리 인원 1만6,693명, 손실액 약 10조원 추정' 이는 지난...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 및 행사

**화성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일시 / 장소 : 2018.2.2(금) 10:20~12:50 /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

대상 : 50명 [담당 : 박은정(031-738-0302)]





# 골록골록 독감(인플루엔자)이 뭐예요?

2018.01.16 질병관리본부 KCDC

올해 유난히 기침이나 몸살로 고생하는 친구들 많죠?  
작년 12월부터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번 독감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퍼지기 쉽고 있다고 하니,  
증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독감 예방법을 따라 배워볼까요?

2/10

2018.01.16 질병관리본부 KCDC

**감기 ≠ 독감**

**독감(인플루엔자)은 독한 감기? NO~!!**

같은 듯 다른 감기와 독감, 과연 같은 병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보통 감기와 다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상황에 맞는 치료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3/10

2018.01.16 질병관리본부 KCDC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의 차이가 궁금해요!**

감기는 다양한 나이 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세계적 내내 걸릴 수 있어요.  
독감은 주로 겨울이나 다음 해 봄까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으로  
A형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4/10

2018.01.16 질병관리본부 KCDC

**다음 증상이 보일 경우 당장 병원으로!**

독감에 걸리면 갑작스런 발열과 함께  
온몸의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과 기침, 콧물,  
목통증 등의 호흡기 증상이 심하게 옵니다.

5/10

2018.01.16 질병관리본부 KCDC

**독감(인플루엔자)은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해요!**

독감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독감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친구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해요.

6/10

2018.01.16 질병관리본부 KCDC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기침할 때 후지나 옷소대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면 마스크를 써야 해요.

7/10

2018.01.16 질병관리본부 KCDC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30초 이상 손을 씻는  
올바른 손씻기를 지켜주세요.  
(외출 후, 배변 후, 기침 후 등)

8/10

2018.01.16 질병관리본부 KCDC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면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아주세요!  
다른 친구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화분 등 때까지  
이틀간 학교, 학원 등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9/10

2018.01.16 질병관리본부 KCDC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꼭꼭 지켜주세요!**

10/10